상반기 국내주류 출고동향

글 | 길민옥 주류1팀

1. 개요

2005년도 상반기 대부분의 국내주류 출고는 일반 서민층에서부터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널리 애용되고 있으며 주종별 판매량은 경기변동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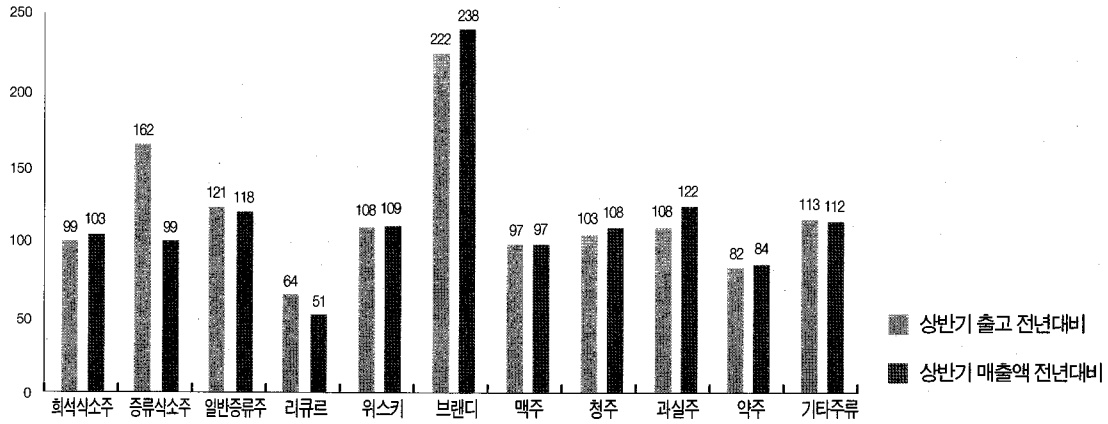
최근 들어 경기체감 지수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잠시 회복세를 보이는 듯 하다 4월부터 다시 하락세를 나타냄에 따라 상반기 주류출고량도 전년대비 2.36%(실수량 기준)감소하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전망조사에서도 소비자 기대지수가 95.4%로 전월 99.2%보다 하락하는등 3개월째 떨어지고 있어 주류소비자들 대부분이 중산층인 것을 감한할 때 하반기 국내

〈표1〉 2005년 상반기 주류출고 현황표

※ 수입주류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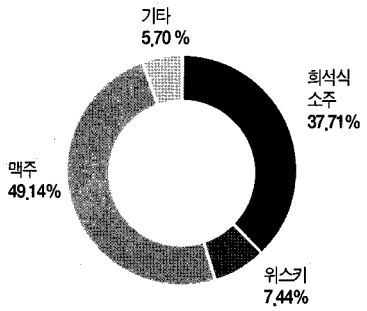
구분 / 주류별		상반기					
		출고수량(㎘)			총매출액(백만원)		
		2004	2005	전년동기대비(%)	2004	2005	전년동기대비(%)
합 계		1,503,520	1,468,003	97.64	3,354,249	3,356,438	100.07
증류주	계	609,217	602,806	98.95	1,495,125	1,545,593	103.38
	희석식 소주	595,900	589,583	98.94	1,225,972	1,265,633	103.24
	증류식 소주	50	81	162.00	356	351	98.60
	일반 증류주	4,017	4,847	120.66	8,316	9,780	117.60
	리 큐 르	4,009	2,571	64.13	29,693	15,239	51.32
	위 스 키	5,172	5,571	107.71	228,788	249,838	109.20
	브 랜 디	69	153	221.74	2,000	4,752	237.60
양조주	계	893,134	863,874	96.72	1,855,729	1,807,027	97.38
	맥 주	860,098	832,603	96.80	1,695,089	1,649,484	97.31
	청 주	12,007	12,422	103.46	48,192	52,123	108.16
	과 실 주	6,430	6,934	107.84	28,628	34,848	121.73
	약 주	14,599	11,915	81.62	83,820	70,572	84.19
기타 주류		1,169	1,323	113.17	3,395	3,818	112.46



〈그림 1〉 주류별 전년대비 출고 현상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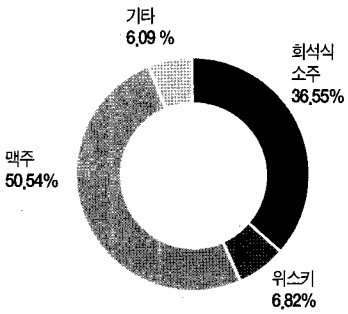
내수경기회복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년도 주류출고량도 전년대비 소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도 상반기 주종별 출고량을 살펴보면 희석식소주 1.06%, 맥주 3.2%, 약주 18.38% 감소하였으며 위스키는 7.71%, 과실주 7.8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류에 있어서도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 상반기 매출액 점유비

〈그림 2〉 주류별 매출액 점유비 비교



2004년 상반기 매출액 점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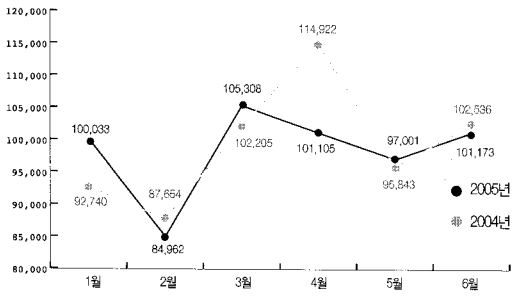
2. 주종별 동향

가. 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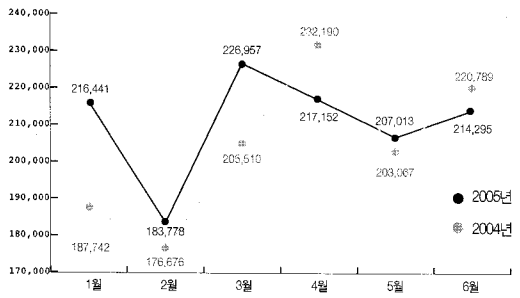
국내주류 중 소주는 가장 대표적인 서민주로서 국내경기 불황에 따른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1/4분기에는 출고량이 2.73%가 증가하였으나 4월과 5월에는 감소로 돌아섰으며 6월달부터 점차 회복되는 추세이나 상반기까지의 출고량은 전년대비 1.06% 감소하였다. 4월과 5

월에 출고가 감소한 이유는 전년도 4월에 소주 가격 인상으로 인한 가수요가 발생되어 출고량이 증가된 바 출고 추세는 3/4분기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출고량 추이를 살펴보면 1월에는 설 명절에 따른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2월은 설 연휴로 인해 출고 일수가 줄어들어 출고량이 감소하였다가 3월부터는 업계의 본격적인 판매 전략과 마케팅으로 인해 전년 출고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4월 이후 다시 감소하다가 5월 이후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3〉 2005년 상반기 소주 월별 출고량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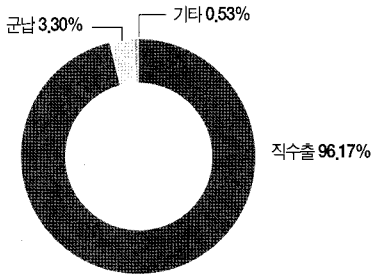
〈그림4〉 2005년 상반기 소주 월별 매출액 변동추이(백만원)

상반기 소주출고량 중 면세주의 96.17%가 수출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주수출량은 전년대비 5.86%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출량의 91.58%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수출량이 감소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금년도 소주 수출량은 소폭감소 또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2〉 2005년 상반기 소주 면세주 출고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출고수량(상반기)			출고금액(상반기)		
	2004	2005	전년대비	2004	2005	전년대비
합계	43,610	41,178	94.42	71,025	59,025	83.10
직수출	42,065	39,599	94.14	69,317	57,179	82.49
군납	1,294	1,308	101.08	1,427	1,484	103.99
기타	251	271	107.97	281	362	128.83



〈그림5〉 2005년 상반기 소주 면세주 출고 점유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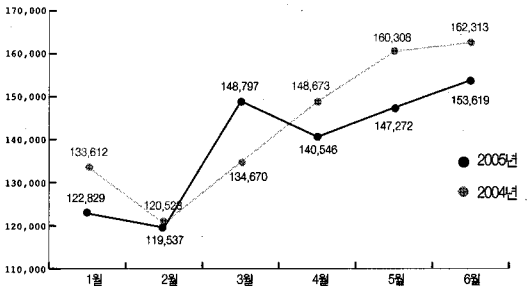
나. 맥주

맥주는 주류 중에서 출고량이 기온변화에 민감한 주류로서 년 초는 비수기에 해당함에 따라 1~2월까지는 출고량이 감소하였으나 3월 신학기 시작과 더불어 여러 가지 이벤트등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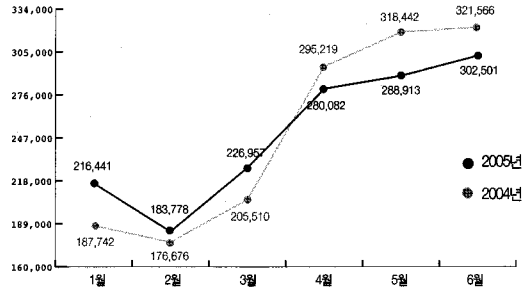
극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3월부터 점차 급증하여 1/4분기까지 출고실적은 전년대비 0.61% 증가 하였으나 계속 이어지는 경기불황과 6월부터 시작된 장마로 인해 맥주의 판매부진이 4월부터 6월까지 이어져 상반기 출고량이 전년동기대비 3.2%(매출액대비 2.69%감소)감소되었다.

맥주의 용기별 출고량은 일반소비자들로부터 가정에서 음용후 남은 맥주의 보관이 용이한 PET(피처)의 장점으로 인해 선호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상반기까지 PET의 시장점유율이 14.9%를 차지하면서 점차 병입 맥주와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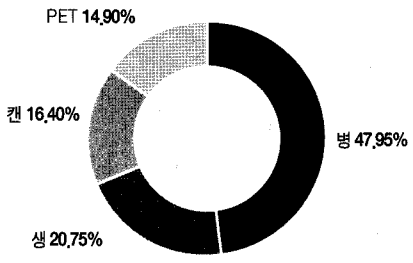
지난 6월 15일 오비맥주가 700㎖ 페트맥주를 출시하였으며 뒤이어 7월 1일 하이트맥주도 1,000㎖페트용기를 출시함에 따라 하반기 페트맥주의 출고량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7〉2005년 상반기 맥주 월별 출고량 변동추이 비교(㎘)



〈그림8〉2005년 상반기 맥주 월별 매출액 변동추이 비교(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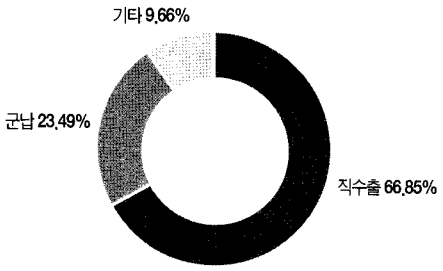
〈그림6〉2005년 용기별 점유비(상반기)

맥주의 면세주류는 수출이 66.85% 군납이 23.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이 8.02% 감소되고 군납맥주는 12.06%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4.74% 감소되었다. 군납맥주의 출고량이 증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면세맥주의 출고량이 감소한 이유는 수출이 대폭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수출국 대부분이 동남아시아로써 홍콩 42.98%, 일본 26.75%, 대만 7.84%등에 집중되어 있어 수출국 다변화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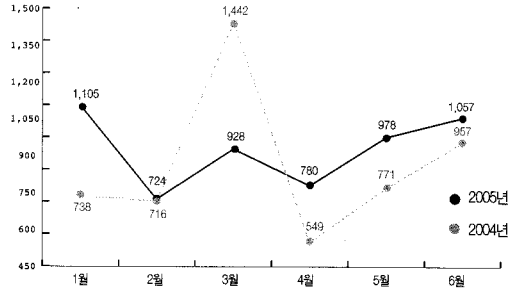
〈표3〉2005년 맥주 면세주 출고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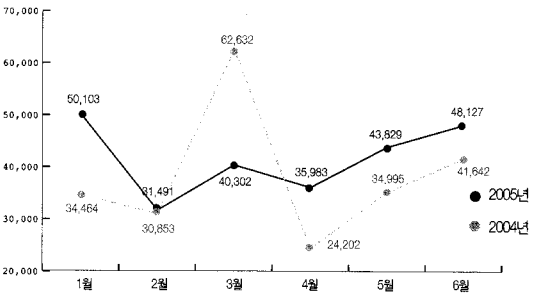
구분	출고수량(상반기)			출고금액(상반기)		
	2004	2005	전년대비	2004	2005	전년대비
합계	45,515	43,358	95.26	41,616	37,880	91.02
직수출	31,512	28,984	91.98	25,813	22,564	87.41
군납	9,089	10,185	112.06	9,952	10,980	110.33
기타	4,914	4,189	85.25	5,851	4,336	74.11



〈그림9〉맥주 면세주 출고점유비(%) 현황



〈그림10〉2005년 1/4분기 위스키 월별 출고량 변동추이 비교(㎘)



〈그림11〉2005년 1/4분기 위스키 월별 매출액 변동추이 비교(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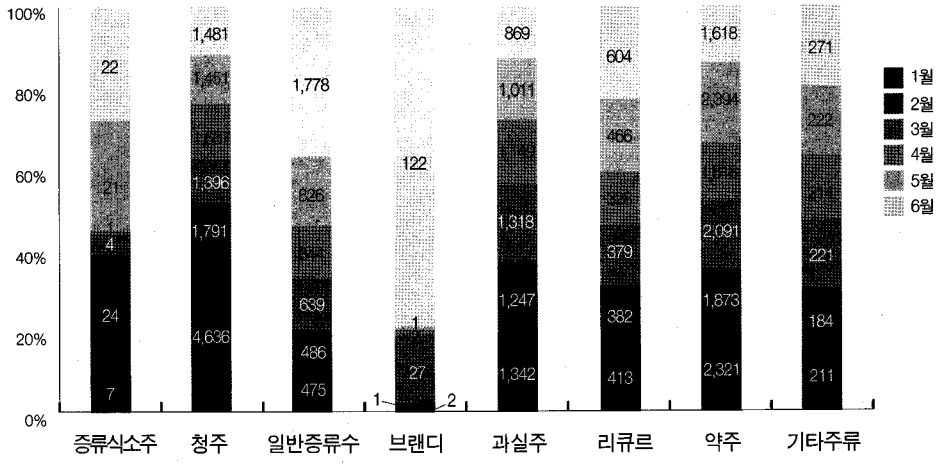
다. 위스키

2005년도 상반기까지 위스키 출고량은 7.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2004년도 위스키 출고량이 경기침체 지속화에 따른 소비위축과 접대비실명제, 성매매금지법등이 발효되어 15%정도 급격히 감소되어 최악의 수준이었으나 2004년도 말부터 위스키업계는 그동안 주 거래처인 유흥주점의 영업 전략을 바꾸고 바(BAR)시장이나 가정용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마케팅전략을 추진하여 전년대비 7.71%의 증가를 나타냈다.

라. 기타주류

증류식소주는 명절에 주로 판매량이 증가하는 특성으로 민속주로써의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으며 내수출고보다는 수출주(두산)로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2005년 상반기에 기타주류 중 출고가 증가한 주류는 일반증류주와 과실주이며 일반증류주(20.66%증가)의 경우 해태앤컴퍼니가 주종을 변경하여 출시한 담금세상(리큐르)과 참순 500㎖를 출시하고 적극적인 소비자홍보를 함에 따라 출고량이 증가 되었다.



〈그림12〉2005년 상반기 기타주류 월별 출고량 변동추이 비교(㎘)

일반증류주와 반대로 리큐르의 경우 주종변경(일반증류주,과실주)으로 인해 35.87% 감소되었다. 과실주의 경우는 포도주가 소비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관심으로 인해 출고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주의 경우는 2004년부터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조사에서 기존제품의 리뉴얼과 신제품을 개발하는등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2005년도 상반기까지 출고량이 18.38% 감소되었다.

3. 전망

2005년 국내 주류시장은 내수경기의 회복기대 속에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상반기 주류 출고량은 전년대비 2.36% 감소하였다.

국내 주류업계의 주류출고 동향을 살펴보면 상반기 주류 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진로의 인수업체 선정이 7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이트맥주가 진로를 조건부로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새주인을 찾은 진로의 행보와 두산외 지방소주사들의 대응이 올 하반기 주류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된다. 또한 7월부터 주5일근무가 확대됨에 따라서 가정에서의 소주 소비량이 소폭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식당등 유흥업소에서의 소주소비량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맥주업계 또한 2004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불황의 영향이 올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유흥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병맥주와 생맥주의 매출액은 감소한 반면 가정용인 PET맥주와 캔맥주는 증가

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15일 오비맥주가 700㎖ 페트맥주를 출시하고 뒤이어 7월 1일 하이트맥주가 1,000㎖페트용기를 새롭게 선보임에 따라 올 여름 휴가철에 양사 PET맥주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맥주 역시 주5일근무의 확대와 다가오는 맥주의 성수기에 맞추어 여름 마케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 출고량은 전년 수준으로 전망된다.

위스키업계는 장기화되는 경제침체와 2004년 실시된 접대비 실명제와 성매매금지법인해 삼중고로 감소된 요인이 있었으나 금년부터 소비촉진 위해 업소를 개발하는등 아웃소싱제를 운영하는 방안등을 올해 국내출고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전체위스키 시장으로 본다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반기 출고량은 위스키업계의 다양한 판촉 및 마케팅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증류주와 과실주의 경우 올 하반기에도 웰빙바람과 함께 출고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전체 주류업계는 계속 이어지는 경기불황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도 출고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신제품 개발과 신선한 마케팅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하반기 주류출고량은 전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